

<컴패션 뉴스레터 1961년 9-10월호>

**한국인 전도사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경험하는 짜릿한 경험 중 하나는 전도사들이 보내오는 184개의 월간 보고서와 편지를 읽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다 읽습니다!) 이 문서들은 저희 대구사무소에서 번역해서 항공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저는 이들의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오전 4시 30분)의 모든 예배 출석 인원을 확인하고 기록한 후 바로 후원자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쌀과 보리 등을 헌금으로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육원 심방 횟수, 개인전도, 전도지 배부, 지역기도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달에 그가 그리스도 앞에 몇 명이나 개종하게 했는가?”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개종자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개종자가 늘어납니다. 지난 분기에 총 3,990명이 저희 전도사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 중 4명의 전도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역지에 배정되어 새로운 지역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간 보고서에서 발췌한 네 건의 간증입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매일 지역을 돌며 많이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10마일(16킬로) 이상을 걷는데, 그런 날에는 발이 매우 아프고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닐 때 항상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91번, 문재익(Moon Jae Ik), 4월 보고서

“제 사역을 위해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를 통해 보내 주신 소중한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기도와 도움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5월분 후원금을 한 달 앞당겨서 받았는데, 이 도움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71세의 가장이 이끄는 4인 가족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에 그의 집을 방문하여 주 예수께서 죄인들의 참된 구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세 개의 우상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312번, 문동용(Moon Dung Yong), 6월 보고서

“저는 특별히 이번 달에 두 명의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일곱 명의 노인과 네 명의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16번, 고명곤(Koh Myung Kon), 6월 보고서

(사진에 보시는) 이 교회는 시골의 미전도 지역에 세워진 저희의 훌륭한 새 개척 교회 중 하나입니다. 302번 김규섭(Kim Kyoo Sup) 전도사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는 날마다 보육원들을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힘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전도사의 훌륭한 후원자는 캘리포니아의 J. 프랭크 피터스(J. Frank Peters) 부부입니다. 그는 최근 이 사진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김규섭 전도사가 매달 보내는 보고서를 읽고 매우 기뻐합니다. 저희의 기여는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가 작게나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칩니다. 한국의 국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시골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약 20명의 사진과 삶의 이야기 및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6명의 사진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 드립니다.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하셔도 되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한 명을 선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혼 전도사는 월 10달러, 기혼 전도사는 월 20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대리인, 즉 여러분 자신만의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 2년 동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면, 대부분의 경우 자립할 것입니다. “당신만의 현지 한국인 선교사 지원에 관한 정보” 소책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 구걸하던 소년의 간증

1950년 6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기 전까지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고아가 되었고, 거리로 나와 생계를 위해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불량한 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나쁜 짓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삼각지에서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저는 손을 내밀어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들이 10환 정도의 돈을 주려고 꺼낼 때, 저는 돈을 낚아채 빼앗다시피 해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매일 많은 돈을 모아서 거지들의 우두머리인 왕초에게 갖다주었습니다. 가끔은 3~4명이 무리를 지어 가게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건을 사는 척하며 구경하는 사이에 가게 물건을 훔쳐 다른 가게에 팔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가정집에 들어가 구걸하는 척하다가, 기회가 되면 신발과 우산을 훔쳐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훔치며 돌아다니는 이러한 생활에 이내 싫증이 났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떤 집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사실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을 일일이 다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던 중 <sup>1</sup>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님께서 저희 같은 거리의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보내신 서태진(Mr. Suh Tai Jin) 선생님을 만나 대구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유와 옷을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술과 담배를 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곳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친절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에 살게 된 제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성경학교에 입학한 후 신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두 장씩 읽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다 읽었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가난한 어린이들을

---

<sup>1</sup>로버트 프랭클린 라이스(Robert Franklin Rice, 한국명: 나익수, 1921~): 1950년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복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한국 전쟁 중 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CRF)를 창설했고, 1953년에는 문서출판운동 <승리자 예수(Jesus Victor)>를 시작함(<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3375>).

돌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36번, 송복이(Song Bok Ee),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

###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편지

페루의 리마(Lima)에서 8명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서명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어 하는 소년, 소녀들입니다. 저희는 며칠 전 "코로넷(Coronet)"이라는 잡지를 통해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사를 읽은 직후 한 어린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추가 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덟 명이고, 각자가 1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30<sup>2</sup>솔(soles)을 기부하려고 해요. 저희가 보내는 돈으로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답장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세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Shreveport)의 체리 찰미어스(Cheri Chalmiers)의 편지입니다:

“스완슨 목사님께, 이번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이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보육원에 있는 모든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어린이들도 목사님께 감사할 거예요.”

### 놀라운 변신

<کمپیشن> 지난 호에서 우리의 훌륭한 한국 비서인 피터 강(Peter Kang) 씨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서 보육원 지원을 인수했을 때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단순한 몇 마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 봄 저는 작은 배를 타고 한국의 마산에서 몇 마일 떨어진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다음 눈발이 오는 작은 마을을 거쳐 산비탈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 올라가 "보육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소속의 신 씨(Mr. Shin)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마산 길거리에서 거지 소년, 소녀들을 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배에 태

---

<sup>2</sup>솔(soles): 페루의 화폐

워 이 "보육원"으로 데려와서, 이제 43명의 소년과 5명의 소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약 4에이커(약 16,187제곱미터)의 보리밭과 감나무 몇 그루, 그리고 120에이커(약 485,623제곱미터)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배에 손님을 태우고 서서 왕복으로 오가며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배를 타고 다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린이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 여기 제가 발견한 48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보입니다! 믿으실 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48명의 어린이들 모두가 이 헛간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

- 현재 이 새 보육원 건물에는 86명의 어린이들이 있으며, 6명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새 보육원 건물을 짓기 위해 기금이 보내졌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건 소년,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 매우 중요한 공지 사항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 참고 사항

3개월, 6개월 등 후원금을 한 번에 보내기 원하시는 후원자께서는 후원금을 미리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보내주셔야, 보육원에서 후원금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후원금을 한국에 한 달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후원금은 8월 25일에 송금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보육원 원장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직원 및 이사회 위원이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진정한 기독교 보육원만을 지원합니다. 많은 마음 넓은 한국인들이 전쟁 중에 보육원을 시작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그들 중 세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얼마 전 피터 강 씨는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구세주께 인도했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이제 막 이 보육원으로 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강한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여러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이 보육원을 함께 방문했고, 이곳의 어려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장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는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보육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세주로 믿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물었고, 그는 약 1년 반 동안 성결교회에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저는 그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제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주시는 걸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 3개월 후, 그는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 원장님이 교회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성도를 만나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큰 믿음으로 인도하겠다고 저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와 목사님은 제 사무실에서 원장님을 위해 기도했고, 요한복음 1:11, 요한복음 3:6, 요한복음 3:16 등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듭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원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저희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확신을 갖고자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고 있으며, 그는 매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그의 교회 목

사님이 매일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보육원이 목사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보육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 소포는 10월 15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우편으로 보내야 어린이들과 여러분 모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배송 혼잡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 세관에 소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모든 소포는 개봉 후에 검사를 받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포장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신 후,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하지만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의 선물금 및 우편 비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내면, 2~4배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특별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물론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필품은 구매 가능합니다.

(사진)

후원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두 어린이

### 어린이들의 이름

한국 이름은 말로 부를 때나 글로 적을 때를 막론하고 모두 성을 먼저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의 양육 기록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김동빈(Kim Dong Bin)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성은 '김'이며, 어린이는 '동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진)

러브 앤 호프 보육원(Love and Hope Orphanage)을 방문한 로슨 부부(Mr. and Mrs. Lawson)

### “오퍼레이션 비타민(OPERATION VITAMINS)” 관련 보고

위 사진은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5,000IU 고탐량 비타민과 기타 품목의 사진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이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 비타민뿐 아니라 그 포장 및 취급 등의 비용까지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보내 주셨습니다. 모두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비타민은 600만 캡슐로 수량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4개의 칫솔이 포함된 대형 치약 36,000개와 <sup>3</sup>캔데트(Candettes) 감기약 20,000개를 받았습니다! 후원 업체와 후원자들의 후한 현금 기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준 기독교학회(Christian Medical Society)에도 감사합니다.

향후 추가로 들어오는 모든 금액은 저희 보육원의 다른 의료적 필요를 위해 사용됩니다.

###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봄에 남편과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교회와 그 외 친구들이 후원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의 유용한 제안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5월 중순에 소위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의 한국 비서인 피터 강 씨와 그의 아내인 강 여사, 어린이들과 보육원 이사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을 대구에서 만났으며, 그들은 모두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연으로 인해 대구 방문이 이틀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의 강 비서는 매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일정을 거의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저희는 앤젤 보육원(Angel Orphanage), 러브 앤 호프(Love and Hope) 보육원, 이스턴 라이트(Eastern Light) 보육원, 굿 사마리탄 칠드런즈 보육원(Good Samaritan Children's Home) 등 네 곳의 보육원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마다 청결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깨끗했으며, 매우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큰 고난을 실제 겪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권위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

---

<sup>3</sup>캔데트 감기약(Candettes Cold Tablets): Pfizer가 제조한 감기 및 기침 증상 완화 제품(For fast relief of cough and cold discomforts Candettes cough-jel / Medicine and Madison Avenue / Duke Digital Repository)

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원장님이 훌륭하고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이며, 그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에 확실히 헌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도 필수 불가결한 기관의 운영 및 제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비서인 피터 강 씨는 최근 대학을 졸업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는 활기차고 효율적이며 현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가 지원하는 108개 모든 보육원을 감독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저희는 강 비서 부부의 집에서 진정한 한국 스타일로 식사 대접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드문 기회였고, 융숭한 대접에 저희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컴패션> 1961년 1-2월호에 기독교 간증을 실은 사무실 직원 서수원(Suh Su Won) 양은 대구 청구대학교(Chung Koo College)에서 영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매우 훌륭하고 친절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태도와 영어에 대한 지식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활동을 위한 훌륭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사무실 직원 전체가 지니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영성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강 비서는 저희가 보고 싶었던 어린이들이 대구 교외에 살고 있어 방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각 이사에게 다음 날 오후에 어린이들을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왔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강 비서는 녹음기를 빌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날 어린이들의 노래, 개인 간증, 심지어 하모니카 솔로까지 녹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한국의 낮 시간에는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린이들의 후원자와 친구들에게 들려주라며 저희에게 녹음테이프를 주었습니다. 녹음은 전율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축복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송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소서"를 부르는 것으로 녹음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보육원의 모든 어린이들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들에게는 후원자들이 매일 기도로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 드리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후원자로부터 가능한 자주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지, 카드, 사랑스러운 생일 및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문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에베소서 3:20)

- 앤드류 T. 로슨(Andrew T. Lawson) 부인, 매사추세츠주 노우드(Norwood)